TEN ROOMS OF THE MIND

PEOPLE

Transformation



GILLETTE의 사람들

변화

마음의 열 개의 방

우리 각자가 한 번도 고른 적 없이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다.

그 집에는 주소가 없다. 어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집을, 지금껏 정말로 살아 본 어떤 곳보다 더 잘 안다. 안에는 열 개의 문이 있다.

어떤 문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매일 연다.

어떤 문은 우리와 아무 상관 없는 척하며 잠가 둔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짓지 않았는데도 어쩐지 똑같이 우리 안에 지니고 다니는 방들이 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선반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심리학 교본도 아니다.

이것은 이 열 개의 방을 하나씩, 자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온 한 남자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몇 해를 더 얹은 그가, 그 방들을 자신이 겪은 그대로 정확히 그려 내려 애쓰고 있다.

열 개의 문.

나는 그 문을 모두 열었다.

어떤 문은 호기심으로.

어떤 문은 마지못해.

어떤 문은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을 때에야.

이 방들이 낯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 방들이 내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 아니다.

마음 깊은 어딘가에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기 때문이다.

Ferdinando

사람들 — 변화

내 삶은 자신이 아직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이들은 남았다.

많은 이들이 사라졌다.

모두가 무언가를 남겼다.

한 문장.

한 번의 눈길.

하나의 상처.

하나의 치유.

어떤 만남은 수십 년을 이어지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어떤 만남은 몇 분 만에 한 삶 전체의 축을 바꾼다.

그래서 나는 결코 누구도 얕보지 않는다.

내 옆에 앉은 낯선 사람도.

동료도.

지나가는 행인도.

우연히 만난 노인도.

모든 사람은 하나의 진실을 지니고 있다.

때로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러 온다.

때로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러 온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우리는 그들이 떠나고 한참 뒤에야 그것을 깨닫는다.

돌아보면, 나는 나 자신을 혼자 지은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되어 가는 것 안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한마디 조언.

한 번의 거절.

한 번의 배신.

한마디 격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덕분에 지금의 우리다.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들까지도.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싶은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Ferdinando